

# 닥 섬유 수제지 의상 디자인에 관한 연구 -임베딩과 페이퍼 캐스팅 기법을 중심으로-

이 승 옥

우석대학교 패션뷰티학과 부교수

## Mulberry Handmade Paper Fashion Design with Embedding and Paper Casting Technique

Seung-Ok Lee

Associate Prof., Dept. of Fashion and Beauty, Woosuk University

(2005. 11. 28. 접수; 12. 7. 채택)

### Abstract

Culture industry is appearing as an important sector of economy. Many kinds of culture industry like movie, music, drama, animation and game are creating enormous wealth all over the world. Fashion is a kind of culture industry too and even sometimes treated as art. Korean fashion is not treated as real culture but still as a part of textile industry. Internationally Korean fashion has not yet much to show, and despite of it's potential it does not attract much interest from other countries.

In this paper properties and effects of mulberry handmade paper clothes were investigated with five clothes made of it. In making handmade mulberry paper clothes various techniques could be applied and these techniques could bring new effects. Because mulberry handmade paper does not have little flexibility than ordinary texture, much efforts should be put to the detail works. Handmade mulberry paper clothes have enormous potential as art, because various approach could be applied.

**Key Words:** Mulberry Handmade Paper(닥 섬유 수제지), Embedding(임베딩),  
Paper Casting(페이퍼 캐스팅), Deckle Edge(데클 에지), Clothing Sculpture(의상조각)

### I. 서론

문화산업은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영화, 음악, 드라마, 만화, 게임 등 다양한 문화산업들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부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한국의 패션은 아직 문화로서 시발점이다. 특히 국제적으로는 한국의 특화된 패션으로서 특별히 내놓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잠재력은 풍부

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제무대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유의 독특한 패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국의 전통이 살아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는 패션이 필요한 것이다. 한지 패션은 바로 이러한 점을 고루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지는 중국에서 전래된 것이기는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한국 고유의 것으로 자리 잡았으며,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었다. 옷을 만드는 데도 이용되었는데, 바로 이 점을 살려서 한지 패션을 발달시켜 가면 훌륭한 세계적인 문화상품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한지 패션을 문화산업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은 최근에 매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Corresponding author ; Seung-Ok Lee

Tel. +82-16-741-5506, Fax. +82-63-290-1536

E-mail : leeso@woosuk.ac.kr

2005년에는 국제한지산업박람회(2005 International Hanji Expo, 삼성동 Coex)<sup>2)</sup>가 열렸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는 주빈국인 한국을 알리는 행사의 일환으로 전주 한지 오프 꾸뛰르, 전주한지 세미나<sup>3)</sup> 등이 있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 외에 국내에서도 전주, 원주, 서울 등지에서 다양한 한지 패션쇼와 한지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한지 패션이 우리의 고유 문화상품으로 자리 잡게 하는 과정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사들이 계속 발전해 나아가야만 국제적인 매력을 지닌 우리 고유의 패션 문화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한지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인 닥 나무 펄프를 가지고 디자인 의도에 합당한 형태의 닥 섬유 수제지를 수공예적으로 제작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한지의 역사와 특성, 수제지의 특성과 제작기법을 문헌 고찰하였으며, 최근 본인이 닥 섬유 펄프(일명 한지 죽)로 의상조각의 관점에서 제작하여 발표한 작품을 위주로 제작의도, 제작방법, 제작 후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작품제작에 응용한 수제지 표현기법은 임베딩기법(Embedding), 몰드(Mold)와 데클(Deckle)기법, 질감표현의 극대화를 위하여 펄트, 재봉사, 수직 면사, 펄트 실 등을 사용하였다. 특히 수제지의 자연미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먼저 재단한 패턴(pattern)지를 수제지로 제작하여 의상으로 표현하였다. 의상조각의 표현을 위하여 투명바디의 몸체를 조소 틀로 사용하여 의상을 입체성형<sup>4)</sup>으로 떠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조형미를 표현할 수 있는 닥 섬유 수제지 패션의 성격과 다양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닥 섬유 한지패션이 문화상품으로 자리 잡게 하는 데 기여하려 한다. 용어 사용에서는 닥 섬유로 일반적으로 제작되어 판매되는 종이는 한지, 디자이너가 종이를 디자인 의도에 따라서 제작한 독특한 종이를 수제지로 명하여 구별하였다. 또한 닥 죽은 닥 섬유가 물에 혼합되어 있는 슬러리<sup>5)</sup>(죽 상태)를 의미한다.

작품분석은 최근에 발표한 작품 중에서 5작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원피스 드레스 1점, 투피스

드레스 2점, 코트 드레스 2점의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된 재료는 닥 죽에 다양한 색상의 펄트, 재봉사, 수직 면사, 펄트 실 등의 재료를 작품에 따라 다르게 첨가하여 디자인 하였다. 닥 죽 자체의 자연색을 배경색으로 하였고 타 재료의 색상을 주 색상으로 디자인하여 응용하였다.

## II. 이론적 고찰

### 1. 한지의 역사와 특성

#### 1) 한지의 역사

인간에게는 아름답게 꾸미고,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본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간단한 도구에서부터 일상적인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미적인 아름다움을 부여하여 안정감과 질서감을 주려고 한다. 예술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성향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예술에 이용되는 소재도 일상에서 사용되는 금속, 목재, 토기, 직물, 식물성 섬유 등 다양하였다. 예술작품을 만드는 데 이용된 여러 소재 중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종이이다. 종이는 원래 인간의 생각을 글이나 그림으로 기록하여 보존하기 위해 이용되는 재료 중의 하나였다. 기록이 시도된 이래 여러 종류의 재료가 발명되었는데, 105년 한(漢)의 채륜에 의해서 발명된 종이가 가장 우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다.

채륜에 의해 발명된 종이의 제조법, 원료 등이 한반도에 언제 도입되었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다. 대략 2세기부터 4세기 사이에 전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때 들어온 제조 방법은 채륜에 의해서 개량된 방법이었을 것이다<sup>6)</sup>. 한반도에 전래된 제지법은 그 후 더 발달하여 610년에는 담징에 의해 일본에 전파되었다는 기록이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나와 있다.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제지술로 제조된 종이는 한지(韓紙)라 불리었다.

## 2) 한지의 성질

한지가 다른 서양의 펄프 종지와 차별화 될 수 있는 닥 섬유 본래의 성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sup>7)</sup>.

**수공예성** : 한지란 닥나무와 뽕나무의 섬유질 등 천연 재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연이 가지는 질감을 그대로 갖고 있으며, 전통적인 제작 방법으로 인해 곱고 질겨서 마치 살아서 숨 쉬는 듯한 생명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천연의 소재를 이용하여 손으로 한 장 한 장 만들었기 때문에 수공예 적 가치를 갖는다.

**장기보존성** : 우리나라에서 신라 시대 이후 종이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책이나 그림들이 아직도 전해 내려와 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는 것을 볼 때, 한지는 장기 보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온성과 통기성** : 한지는 섬유 사이에 적당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 창문에 발라두면 공기의 소통으로 자연스럽게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고 환기가 되며, 따스한 햇살이 투과되어 주거생활에 널리 사용되었다. 또한 한지 속에 들어 있는 공기로 인해 보온성을 지니는데, 한지를 여러 장 겹칠 경우 단열성이 좋은 재료가 얻어진다.

**흡수성** : 한지는 흡수성이 매우 뛰어나 물과 만나면 펄프화가 되는 경향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소량의 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먹, 물감, 싸인펜 등의 여러 가지 재료와 함께 적절하게 사용하면 번지는 아름다움을 한껏 살릴 수 있다. 또한 물에 풀어지면 종이와 손상이어 못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여 입체적인 조형물의 제작에도 활용할 수 있다<sup>8)</sup>.

**다양성과 동양적 특성** : 한지는 부드럽고도 형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 엮고, 구기고, 비틀어서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으며, 회화에서부터 종이 공예, 서예, 조소의 영역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와 혼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다양한 색을 지닌 한지가 나오며 섬유 등 여러 가지 물질이 첨가된 색한지가 만들어지면서 이를 활용한 표현의 장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sup>9)</sup>. 또한, 한지에는 동양적인 고전미가 깃들여 있어

은은함, 온화함, 소박함과 자연스러움 등을 느낄 수 있다.

기타: 그밖에 다른 종지와 마찬가지로 한지도 접거나 찢는 등 다양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수정은 한지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최근 의상 작품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된 기법을 회화적 기법(한지그림기법), 염색기법(침염, 판염, 스텐실, 실크스크린, 디지털 프린팅), 장식적 기법(프릴, 플라운스, 플리츠), 공예기법(지승기법, 지장기법, 지호기법, 지도기법, 지화기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sup>10)</sup>. 본 연구에서 수제지는 닥 죽을 디자인 용도와 의도에 따라 제작한 것이다.

## 2. 수제지 재료의 특성 및 제작 기법

### 1) 수제지 재료의 특성

수제지는 습윤과 건조의 제작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진다는 표현 재료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수제지는 현대에 와서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되고 다양한 표현기법의 병용과 다양한 소재로 조형 언어로서의 표현력을 확대해 왔다.

자연의 재료에 비판력과 구성력을 가해서 그 속에 숨어 있는 어떤 이미지를 드러내고, 작가의 의도를 표현하는 예술 매체로서의 종이는 쉽게 휠 수도, 쉽게 형을 제작할 수도 있으며 압력과 잉크, 물감, 파스텔 등 거의 모든 재료에 잘 반응하며 종이의 자연적인 색채, 표면질감, 강도, 투명성, 부드러운 유연성, 흡수성은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독특한 특성<sup>11)</sup>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형태표현에서도 기법을 확대시켜 평면적인 것에서부터 부조적인 2차원, 입체적인 3차원적으로까지 대담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색상혼합, 텍스처어(texture) 등 섬유의 특성을 높여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다<sup>12)</sup>. 특히 천연적이고 자연스럽게 얽힌 추상적이면서도 소박한 표면으로 친근감을 전달해 준다.

수제지의 풍부한 표현력은 콜라주(Collage)<sup>13)</sup>, 아셈블라주(Assemblage)<sup>14)</sup>, 프라타주(Frattage)<sup>15)</sup>,

〈표1〉 수제지의 특성

구분	특성
1 재료	종이의 유연성과 가역성을 이용하면 타 재료와 쉽게 혼합할 수도 있고, 쉽게 수정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작가의 손이 직접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개별적이고 독특한 재질감이 표현된다.
2 형태	형태변화와 기법에 따라 평면에 부조, 입체작품까지 자유스러운 조형미를 추구할 수 있으며, 접고, 꼬고, 말고, 땀거나 늘어뜨리는 각양의 제작방법에 의하여 성형이 있어서 최대한의 자유를 제공한다.
3 착색	착색은 연필, 물감으로 직접 드로잉(Drawing)하거나 염료로 염색하는 모든 방법이 가능하며, 선명한 색상이 비교적 오래 유지된다는 장점도 있다
4 두께	두꺼운 것에서부터 얇은 종이작품까지 그 두께를 조절하여 투명도를 가감할 수 있다.

〈표2〉 수제지의 제작기법

구분	기법 설명 및 특성
1 페이퍼 캐스팅 (paper-casting)	석고로 성형을 만들고 이 성형에 펄프를 부어서 만드는 페이퍼 캐스팅(paper-casting) 작업. 이것은 크고 작은 형태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으며 입체적인 작품 성형표현에 적합하다.
2 몰드와 데클 (mold&deckle)	여러 색의 닥지를 물에 풀거나 염색하여 슬러리를 만든 다음 몰드(mold) <sup>16)</sup> 와 데클(deckle) <sup>17)</sup> 을 사용하여 걸러내는 작업
3 콜라주 (collage)	일상적인 물건, 또는 서로 다른 질감의 소재, 종이를 화면에 부착시켜 작품을 만드는 콜라주(collage)작업. 이 기법을 우리 주변의 일상 소재를 사용하여 우연의 효과를 노리며, 보는 이로 하여금 타성적 미의식에 충격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다.
4 임베딩 (Embedding)	실, 종이, 나뭇잎, 종이노끈, 펄트, 사이잘삼, 등 기타 이물질들 종이에 삽입시키는 임베딩(Embedding)작업. 이때 접착제가 없이 섬유자체의 결합력에 의해 엉겨 고정된다.

빠삐에콜레(Papiers Colles)<sup>18)</sup>혹은 펄프를 이용한 캐스팅 기법으로 3차원적인 입체 조형까지의 다양한 표현을 수행할 수 있는 재료로서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렇듯 종이는 평면으로든 입체 조형으로든 제작과정 중이나 혹은 후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표현을 더 할 수 있다.

수제지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표1〉과 같다<sup>19)</sup>.

## 2) 수제지 제작기법

수제지의 제작은 습윤과 건조 공정에 의해 제조되기 때문에 부직포나 펄트처럼 섬유가 엉겨서 짜거나 엮지 않아도 하나의 면을 제작할 수 있다<sup>20)</sup>. 종이의 기본적인 제조 과정은 먼저 섬유소를 물에 담구어 불린 후 손이나 기계로 힘을 가한다. 이때 텁텁하고 걸쭉한 시럽이 형성되는데 이것을 슬러리(slurry)라고 한다. 이 슬러리를 직사각형의 제지 틀이나 체에 걸러지게 해서 물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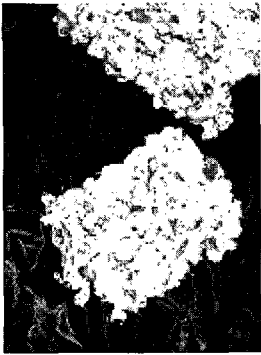
빠진 침전 섬유를 건조시켜 종이를 완성시킨다. 이러한 수제지는 제작의 여러 기법을 이용하여 형태를 임의로 제작할 수 있다. 기법상의 종류를 분류해 보면 아래와 같다<sup>21)</sup>. 〈표2〉

이와 같은 기법으로 만들어진 수제지의 특성은 유연하며 가볍고 염색효과가 뛰어나 작품이 자유롭게 표현되며, 두께를 조절하여 투명도를 가감하며, 텍스처어, 깊이, 우리나라는 색채,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형태를 제공한다.

## Ⅲ. 닥 섬유 수제지 의상 제작

### 1. 제작의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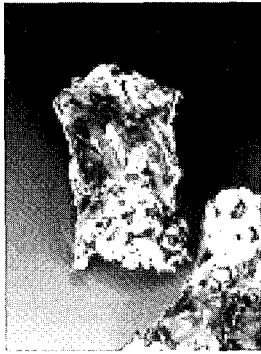
미적인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욕구는 의복선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획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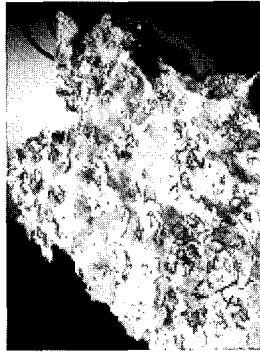
〈그림1〉 임베딩 기법



〈그림2〉 임베딩 기법



〈그림3〉 페이퍼캐스팅



〈그림4〉 폴라쥬 기법

의 거부와, 심미적인 수공의 장식 예술이 강조되어지며, 독창성이 보다 중요시되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수제지를 현대 복식에 활용하는 것은 수공의 독특한 재질감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경향은 토털 패션으로서 베이직 의상으로부터 코스튬 의상으로까지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닥 섬유 수제지의 활용은 다양한 아이템을 제시하는데 용이하다. 현대 패션에 있어서 다양한 액세서리, 가방, 구두등 소품이 토털 코디네이션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sup>22)</sup>.

본 논문은 아직까지 의상소재로서 개발이 미흡한 수제지를 임베딩 기법, 페이퍼 캐스팅기법, 전통적으로는 지호기법<sup>23)</sup> 데클 에지기법을 중심으로 수공으로 제작하였다.

페이퍼 캐스팅 기법으로는 투명바디를 이용하여 인체의 형 위에서 원하는 디자인 형태를 통으로 제작하는 방법으로 두께도 의상조각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데클 에지기법을 활용하기위하여 재단

이 완성된 옷본크기로 제작하여 최소한의 봉재로 완성한다. 두께도 어느 정도 있어서 인체 없이도 입체적 형태 유지가 용이한 의상 조각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특히, 수제지의 독특한 재질감을 극대화하고자 펠트는 색상의 조화로서 디자인하였고, 다양한 실은 굵기, 색상, 광택 등 미묘한 차이를 회화 도구를 사용하듯이 표현하였다. 의상의 실루엣은 의상 조각의 이미지와 인체의 조화를 가장 중요시했으며 예술 작품으로서 언웨어블(unwearable) 상태에서도 자연스런 인체 형 위에 입혀진 의상으로 표현하려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수제지를 응용한 입체 의상을 수제지의 특징과 기법을 기능적으로 활용하여 독특한 재질감과 조형미를 표현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기법으로 만들어진 수제지의 특성은 유연하며 가볍고 염색효과가 뛰어나 작품이 자유롭게 표현되며, 두께를 조절하여 투명도를 가감하며, 텍스처, 깊이, 우러나는 색채,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형태를 제공한다. 〈그림1〉은 닥 죽에 원색의 펠트를 섞어서 만든 수제지이며, 〈그림2〉는 닥 죽에 다양한 실, 펠트를 붙인 임베딩, 폴라쥬 기법, 〈그림3〉은 빨강색의 다양한 실의 굵기로 변화를 준 폴라쥬, 임베딩기법의 작은 모티브 〈그림4〉는 페이퍼 캐스팅기법을 응용한 인체 모형으로 앞, 뒤 플라스틱 바디를 이용하여 원색의 펠트를 임베딩 하여서 인체의 모형대로 인체를 부조 하여 수제지 조각품으로 바디스를 제작하였다.

작품제작을 하면서 소재의 장·단점을 고찰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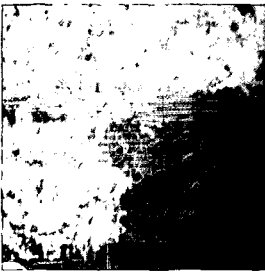
장점은 종이의 유연성으로, 타 재료와 쉽게 혼합이 가능하며, 작가에 따라 독창적인 재질감의 표현과 두께조절이 자유롭다. 표현기법과 제작방법에 의해 자유로운 조형미를 추구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섬유에 비해 뻣뻣하므로 기능성의 한계를 나타낸다. 특히 소매, 팔의 형태 구조에 유의하여야 착용하였을 때 자연스럽다. 물에 젖으면 종이가 풀어지거나 찢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작과정과 후처리의 관리가 까다롭다. 다음 〈그림5〉〈그림6〉〈그림7〉〈그림8〉은 작업과정을 차례대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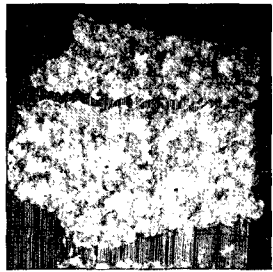
〈그림5〉 임베딩 작업하기 전의 임베딩용 실



〈그림6〉 재단된 그물망 위에 실로 디자인하는 것



〈그림7〉 디자인한 실 위에 닥 죽을 엮는 작업



〈그림8〉 완성된 수제지 소매의 모양

2. 작품제작 및 분석

〈그림9〉는 원색의 펠트(felt) 임베딩 기법으로 입체조각물을 만들어 인체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비대칭 상의와 여섯 조각으로 구성된 자유로운 스커트 단선으로 구성하여 움직이는 조각물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그림10〉은 움직이는 조각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상의 가슴선과 스커트 단선에 악센트를 주



〈그림9〉 임베딩과 데클 에지 기법으로 디자인한 입체 조각 의상



〈그림10〉 데클 에지와 원색이 펠트 임베딩 기법의 두피스



〈그림11〉 모티브 연결로 만든 원피스 드레스



〈그림12〉 데클 에지 기법이 들어간 오렌지계열 코트 드레스

어서 제작하였고, 펠트로디자인 포인트를 주었다. 닥 섬유의 흰색과 임베딩 된 펠트가 상의와 스커트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상의 바디스는 플라스틱 인체 모형 틀로 통으로 부조형식으로 제작하여 입체감을 극대화하였으며, 상의 끝단은 공간감을 주었다. 모든 단선은 데클 에지기법으로 자연미를 추구하였다.

〈그림11〉은 작은 모티브를 각각 실의 색상, 굵기 등으로 변화를 주어 만든 후 인체의 입체감에 따라 돌출 부위는 모티브를 많이 붙여서 입체감을 살렸다. 얇은 신축성 있는 속치마 위에 붙여서 제작하였으며, 인체에 밀착된 원피스로 실루엣이 잘 드러나면서도 입체적인 드레스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스커트 단선은 길이의 변화로 자유로움을 표현하는 입을 수 있는 예술 의상이다.

〈그림12〉는 오렌지 계열의 다양한 굵기의 재봉사, 수직면사 등을 임베딩 하였으며 특히 코트의 모든 끝선을 자연스러운 데클 에지를 강조하기 위해 코트 패턴을 먼저 몰드 망으로 재단하여 크기대로 수제지를 제작하였다. 두께는 코트 이미지를 살리는 정도로 하였다. 재단 없이 그대로 최소 봉제만으로 코트를 완성할 수 있다. 코트시집은 길으로 나오게 봉제하여 단순한 코트 디자인에 변화를 주었으며, 색상과 실의 굵기로 큰 화폭을 추상화를 인체의 굴곡을 의식하여 그렸으며, 입체 조각품을 의상으로 표현 하였다.

〈그림13〉은 숲속의 이미지를 임베딩 기법으로 그려준다. 청색계열의 다양한 굵기의 재봉사, 수직면사, 펠트 실을 닥 섬유와 임베딩 하여 나무의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하였다. 적당한 코트두께를

〈표3〉 작품분석

작품	소재	구성	실루엣 및 라인	색상	기법	특징
I	닥 섬유 수제지, 펠트	투피스	비대칭 바디스에 6쪽 고어드 A라인 스커트	닥 섬유 순색, 원색의 펠트	임베딩 몰드와 데클 에지	인체 바디스 디자인에 조형미를 펠트로 강조하고, 마치 의상 조각품으로 느껴지게끔 바디스는 통으로 제작되었다. 스커트도 착용과 전시에 공간감을 표현하여 디자인 한 입체작품.
II	닥 섬유 수제지, 인체 모형, 펠트,	투피스 드레스	허리 밑 부분이 강조된 상의 디자인과 H라인의 스커트	닥 섬유 순색에 원색 펠트	임베딩 몰드와 데클 에지	인체 형에 따른 바디스에 끝단은 공간감으로 띠었으며, 스커트는 데클 에지(Deckle-Edge)로 인한 자연미와 아랫단 부분에 원색 펠트로 강조한 디자인으로 의상조각의 이미지가 강한 입체작품
III	닥 섬유 모티브 수제지, 재봉사, 수직면사	원피스 드레스	퍼트 되면서 약간 퍼지는 A라인	닥 섬유 순색, 진한 핑크, 보라, 청색실	임베딩, 플라쥬	상의는 인체 볼륨감을 살려서 모터브를 신축성 있는 스리브(속치마)에 인체굴곡을 표현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 착용 또는 전시 시에 인체의 입체감과 스커트의 공간감을 그대로 살린 입체작품
IV	닥 섬유, 재봉사, 수직면사,	코트드레스	내추럴 H 라인	닥 섬유 순색에 주황, 노랑, 계열의 다양한 실	임베딩, 데클 에지	미리 재단된 몰드지 위에 풀어놓은 실로 디자인을 하고 그 위에 닥 섬유(닥 죽)를 얹어서 의도한 두께의 닥 섬유 패브릭을 만들어 건조 시킨다. 이후 최소한의 봉제로 H라인의 심플한 코트 드레스 위에 화폭이 연상되듯 화려한 색감으로 표현하였다.
V	닥 섬유, 재봉사, 수직면사, 펠트 실	코트드레스	내추럴 H 라인	닥 섬유 순색에 파랑계열의 다양한 실	임베딩, 데클 에지	숲속 나무의 굴곡을 실의 굵기와 색감으로 표현한 코트드레스로 안단부위도 디자인하여 칼라형태를 부각시켰으며, 예술 의상으로 질감표현이 재미있는 입체작품이다.



〈그림13〉 임베딩, 데클 에지 기법으로 디자인한 코트 드레스

의상을 수제지로 제작 할 때는 팔이 구부러진 형

유지하도록 했으며, 칼라 안단 부위는 겉과 안의 디자인에 변화를 주었다. 데클 에지의 자연미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 재단크기대로 종이를 제작하여 최소한의 봉제로 코트를 제작한다.

숲속의 이미지가 그려진 예술 의상이며 착용 시에는 소매가 불편하였다. 이런 입체적인

태도로 또는 팔의 관절 부위를 피하는 디자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작품제작에 따른 분석은 〈표3〉으로 정리 하였다.

#### IV. 결론

닥 섬유 수제지를 재료로 활용한 다양한 작품들은 닥 섬유 수제지 패션의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이 작품들에 적용된 기법들도 예술적으로 매우 다양한데, 이는 앞으로 닥 섬유 수제지 의상이 패션 예술의 경지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닥 섬유 수제지 패션은 아직 태동 단계라 할

수 있다. 수제지의 특징을 살려서 새로운 패션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패션계에서 크게 주목받을 만한 작품이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작품 제작자가 임베딩, 폴라쥬, 부조 등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수제지의 특성은 다른 섬유를 이용한 패션보다 훨씬 다양한 실험들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고, 이는 전에 볼 수 없던 많은 새로운 패션 작품들의 탄생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수제지 패션 작품들은 또한 패션계에 신선한 자극을 줄 것이고, 이를 통해 패션의 발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다섯 개의 작품 제작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닥 섬유 수제지를 패션에 이용할 경우 다양한 조형예술 기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는 패션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2. 수제지는 보통의 섬유와 달리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패션에 적용하여 실제 의상을 제작할 경우 이음새나 구부러지는 부분 등을 처리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닥 섬유 패브릭 개발이 Coex전시에서도 보았듯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능성이 다른 천연 섬유와 같으면서 특히 환경 친화적이고, 인체와 잘 맞는 섬유라는 점에서 전망이 밝다고 한다. 그간 패브릭이 아닌 종이 개념의 수제지를 이용해서 제작한 의상이 실제 착용되는 경우는 수의, 특수의상으로 제한되었지만 앞으로는 일반 다른 의상처럼 실제 착용 될 것이다.
3. 수제지를 패션에 적용하면 한편으로는 의상의 성격을 지니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작품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현대 토털 코디네이션은 단품과 소품 등 다양한 아이템을 독창적으로 조합하는 경향이 많다. 이에 수제지 아이템은 독창성, 실용성, 예술성을 표현하기가 용이하므로 지금까지 연구된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과감한 시도를 통해서 수제지의 유연하지 않는 단점을 장점 화 시키는 방법으로 조각 의상의 이미지를 예술 의상으로 승

화 시키는 방법과 단품과 소품을 수제지 아이템으로 실용성과 예술성이 만난 문화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이승철 (2001). *종이만들기*. 학고재, p.15.
- 2) 자료검색일. 2005. 11. 10. 자료출처 [http://pic.joincom/component/media/gallery/2005\\_11/GP](http://pic.joincom/component/media/gallery/2005_11/GP)
- 3) 자료검색일. 2005. 10. 20. 자료출처 <http://news.joins.com./et/2005/10/20>
- 4) 이승철 (2001). Op. cit., p.87.
- 5) 섬유소를 물에 담구어 힘을 가하면 텁텁하고 걸쭉한 시럽이 형성되는데 이것을 슬러리라고 한다.
- 6) 김병남 (2003). *“종이와 인간 그리고 문화의 발달”*. *팬 아시아 종이박물관 편*. 신비의 한지, pp.30-38.
- 7) 이수정, 채선미 (2004). 한지의상에 나타난 소재 표현기법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4)*, p.434.
- 8) 이승철 (2003). Op. cit., pp.88-89.
- 9) 전주전통한지연구회 (2005). *한지, 그 멋과 공예의 세계*. 삼우반.
- 10) 이수정, 채선미 (2004). Op. cit., pp.436-439.
- 11) Ann Hall Mary (2001). *Paper House*. Rockport, pp.4-7.
- 12) 월간공예 (1989). 월간공예, p.52.
- 13) 폴라쥬(Collage): 풀 바르기, 붙여 바르기의 뜻으로 일상의 여러 재료를 자유롭게 골라 붙여 조형표현의 방법으로 한다.
- 14) 아셈블라쥬(Assemblage): 물건의 단편들이 모여 이루어진 예술 또는 예술작품을 뜻한다.
- 15) 프로타쥬(Frattage): 문질러 형상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우연적 효과가 나타난다.
- 16) 몰드(Mold)-시트 형성에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로서 나무나 기타재료로 된 틀에 구멍 뚫린 망이나 천을 당겨서 고정시켜 만든다.



- 17) 데클(Deckle)-종이를 거르는 체에 가장자리를 형성하고 움직임 들어낼 수 있는 틀(흔히 목재를 사용한다).
- 18) 빠삐에콜레(Papiers Colles): 신문, 기차표, 벽지 등의 종이를 캔버스에 단편적으로 부착시켜 특수효과를 내는 기법으로 피카소, 브라크의 입체주의 작품에서부터 시작 되었다.
- 19) 이주실, 김정혜 (1999). 종이 의상에 관한 연구. *복식 44*, p.192.
- 20) 송변수 (1985). *섬유예술*. 월간디자인 출판부, p.78.
- 21) 이주실, 김정혜 (1999). Op. cit., p.193.
- 22) 진경옥 (2005). 존 갈리아노 패션쇼에 나타난 현대 패션코디네이션 특성. *복식 55(6)*, p.53.
- 23) 한지공예의 종류. 자료검색일. 2005. 10. 30. 자료출처 <http://www.wjhanji.co.kr>